

尹, 세 차례 출석요구 버티다 체포...계엄선포 43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에서 체포까지

법원 체포영장 첫 발부 15일만 끝까지 “불법 무효 영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만인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끝에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사태 발발 이후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한 건 검찰이었다.

지난달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차례로 조사한 뒤 윤 대통령에게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검찰은 이튿날 곧바로 2차 소환 통보일을 12월 21일로 정해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같은 날 공수처도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1차 요구를 보냈다.

공수처의 18일 1차 소환조사는 윤 대통령이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특수본이 준비하던 2차 소환은 취소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0일 2차 통보를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2차 조사도 무산됐다.

‘40년 지기’로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한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2차 소환일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공수처는 12월 29일로 3차 조사일을 정해 마지막 출석 요구를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차 통보에도 변호인 선임에 불응하며 불응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12월 30일 새벽 12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고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아닌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부지법은 12월 31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불법 무효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만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섰다. 그러나 200여명의 경호·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5시간이 넘는 대기 끝에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다음날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해 지난 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며 수사팀에 ‘체포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전략과 인력 지원 규모 등을 지속해 협의하며 전력을 가다듬은 뒤, 영장 재발부 8일 만인 이날 2차 집행을 시도해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관저 진입·체포까지 긴박했던 ‘7시간’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신속 마무리 사다리·절단기 투입 후 진입 순조 2시간 협상 끝 체포 공수처로 이송

사를 자처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수습명예에 가로막혔다. 이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주변 시위대가 몰려들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집행 초반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교착 상태는 ‘공성 병기’가 투입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오전 7시경부터 경찰은 절조망을 절단하고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와 절단기를 보급했다. 공성전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는 크레인 등 중장비도 배치됐다. 오전 7시30분경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출입문을 넘는 데 성공했다.

물꼬가 트인 이후에는 ‘파죽지세’처럼 집행 인력들이 관저 내부를 빠르게 장악해나갔다.

오전 7시33분 1차 저지선을 돌파했고, 7시48분 2차 저지선을 우회했다. 7시57분 철문과 차벽이 쳐진 3차 저지선 앞에 도착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관저 내부로 들어가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상에 돌입했다.

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10시33분경 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7시간 여만에 마무리됐다.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까지 거론되는 상태에서 최대 2박3일 장기전을 준비했던 점을 고려하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했던 ‘체포 작전’은 이날 오전 3시20분경부터 시작했다. 밤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지킨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에 달한 만큼, 경찰은 기동대 54개 부대·3200여명을 투입해 현장관리를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지나 경찰이 확보한 경로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들어왔다. 이들은 체포·수색영장을 쥐고 관저 앞에 도착했다. 영장에 적힌 작전 장소는 관저·사저·안전 가옥이었다.

체포 작전 시작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새벽 5시10분경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협조를 구했지만, 호위무

尹, 수사기관 조사 역대 6번째 대통령 ‘불명예’

역대 대통령 조사 현황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현직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혐의 받은 노태우씨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장관의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보유’ 발언이 나온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씨의 비자금 4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다.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두환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전씨는 노씨와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그해 12월 2일 오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며 소환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고향 경남 함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은 구속한 뒤 전씨가 수용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1995년 12월 3일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재임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 가량이 흐른 2018년, 황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끝에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전·현직 대통령 조사 현황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시기 1995년 11월 1일	1995년 12월 3일	2009년 4월 30일	2017년 3월 21일	2018년 3월 14일	2025년 1월 15일
조사장소 대검찰청 청사 (17시간 조사) 구속	검찰 소환 불응, 구속 안양교도소 수감 후 검찰 조사	대검찰청 청사 (약 1시간 20분 조사)	서울중앙지검청사 (약 2시간 20분 조사)	서울중앙지검청사 (약 2시간 30분 조사)	검찰·공수처·소환 불응, 공수처 3일 체포영장 집행 무산 15일 2차 집행 체포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영장 확보 조사실
주요 혐의 반란내란중요 임무중단·상관살해 미수죄 뇌물죄	반란내란수고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미수죄 뇌물죄	박연차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혐의, 노 대통령 서거로 수사 중단	특기법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	특기법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	내란 우두머리 (수고)·직권남용 관리방해 방화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첫 출석에 바로 2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뭏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뭏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안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증암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윤요순(610105-2XXXXXX)
• 최후주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91, 101동 304호(창남힐메어)
피상속인 망 윤요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12월 26일 1266호로 신청하여 2025년 1월 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방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16일
• 상속인: 유재일(870821-1XXXXXX)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91, 101동 304호(창남힐메어)
• 신고기간: 2025. 1. 16 ~ 2025. 3. 28.
• 채권신고처: 상속인 유재일의 주소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1월 15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총액 금10,000,000,000원을 금5,0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0,000원의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주주로부터 회수하여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2,000주를 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 바,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익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 같은 기간 내에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주식회사 건축문화연구소한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산업협력공공관 804-2호(용봉동)
대표이사 최 경 미

주권 및 채권자의 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1월 15일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00원 중 금99,00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1,0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000원의 보통주식 100주에 대하여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병합하였으므로, 본 자본감소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 주권과 이의서를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호그린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매화2길 6
사내이사 홍성호

先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 통 266-1920 • 문 269-1990 • 팩 525-3761 • 신 222-8171 • 향 571-7668 • 오 266-7901 • 통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통 673-6836 • 통 222-9054 • 통 부 225-6001 • 통 222-9054 • 통 222-8171
남구	• 통 부 673-6836 • 통 661-1833 • 통 선 673-6836 • 통 675-6905 • 통 671-7276
서구	• 통 382-6788 • 통 372-2362 • 통 369-1625 • 통 376-7153 • 통 376-6511 • 통 603-0311 • 통 369-1625
광안구	• 통 952-1687 • 통 959-1920 • 통 973-2900 • 통 955-0451 • 통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예약구독 220-0550